



우승 반지 쏙스럽다 'V13'은 내 손으로

비로 경기 일정이 미뤄지면서 KIA 타이거즈 윤영철의 한국시리즈 등판이 무산됐지만, 그는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V13'의 주역이 되겠다는 각오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좌완 윤영철, 꺾은 날씨에 KS 등판 못하고 마무리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비시즌 알차게 몸 만들겠다”



“반지 도둑” 좌완 윤영철이 'V13' 주축을 꿈꾼다. KIA 타이거즈의 윤영철은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가장 애매하게 기다림을 보낸 선수

중 한 명이다. 고졸 2년 차 윤영철은 이번 시리즈에서 4차전 선발로 첫 '가을 잔치'를 준비했다. 하지만 하늘이 윤영철에게 마운드를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1차전이 비로 늦게 시작됐고, 또 비 때문에 6회초에 경기가 멈췄다. 22일로 연기됐던 경기는 다시 또 비로 하루 밀렸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됐던 4차전이 26일로 변경됐고, 하루 더 여유가 생기면서 1차전 선발로 출격했던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26일 4차전까지 책임졌다. 그리고 28일 진행된 5차전에는 2차전 선발이었던 양현종이 다시 등판했다. 이날 양현종이 3회 일찍 마운드에 올라가면서 김도현을 시작으로 마무리 정해영까지 6명의 불펜 투수가 투입됐지만 윤영철은 등장하지 않았다. 후시 모를 다음 경기를 위해 윤영철은 다시 또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고, 이날 경기가 KIA의 7-5 승리로 끝나면서 등판 없이 우승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반지 도둑이 됐다”며 웃은 윤영철은 “우승해서 굉장히 기쁘다. 원준이 형이 옛날에 반지 도둑이었다고 했다. 원준이 형처럼 하나 받고 나중에 주축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하고 싶다. 1개 받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쉽게 한국시리즈 기록은 남기지 못했지만 프로 두 번째 시즌에 우승팀 일원이 된 것만으로도 윤영철에게는 특별한 가을이 됐다. 윤영철은 “삼성 강민호 선배님은 21년 동안 처음 한국시리즈 뺏아보신다고도 하고, 은퇴할 때까지 뺏아보고 가는 선수들도 많다”며 “많이 기다리면서 준비했지만 팀이 이기는 데 뭐가 중요하겠나. 몸

은 10번이고 20번이고 더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팀이 높은 위치에 있어야 어린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무대 긴장감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운드는 안 올라가 봤지만 이 분위기를 다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의 무대가 왔을 때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다음 무대를 그렸다. 충암고를 졸업하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지난 시즌 윤영철은 팀의 선발 한 자리를 꿰차면서 8승을 수확했다. 올 시즌에도 선발 로테이션에 이름을 올리며 마운드 전면에 섰다. 씩씩하게 마운드에 올랐던 윤영철이었지만 초반 부진으로 올 시즌에는 마운드가 멀게 느껴지기도 했다. 부상도 윤영철을 힘들게 했다. 윤영철은 지난 7월 13일 SSG전에서 허리 통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고, 이후 척추 피로 골절 진단을 받았다. 두 달여를 쉬었던 윤영철은 9월 23일 삼성과의 홈경기를 통해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고,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렸다. 입단과 함께 선발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왔던 윤영철은 올 시즌 부진과 부상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차분하게 다시 야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시리즈 무대를 직접 밟지는 못했지만 뜨거웠던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도 또 다른 자산과 동기부여가 됐다. 건강하게 ‘가을잔치’ 주인공을 꿈꾸게 된 윤영철은 ‘몸관리’를 우선 목표로 다음 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다. 윤영철은 “살을 빼고 있다. 체지방을 빼려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있다. 비시즌 때도 몸관리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알찬 비시즌을 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네일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기뻐요”

KIA 박재형 투수 담당 통역
생일날 'KS 우승' 기쁨 두배
네일이 건넨 선물에 함박웃음

KIA 타이거즈의 박재형 통역이 잊지 못할 2024시즌과 생일을 보냈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는 선발진의 줄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다. 외국인 투수들도 부상자 명단에 잇달아 이름을 올리면서 올 시즌 KIA는 무려 5명의 외국인 투수로 마운드를 운영했다. 윌 크로우가 팔꿈치 통증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대체 외국인 선수로 캠 알드레드가 영입됐다. 크로우가 팔꿈치 수술로 팀을 떠나게 된 뒤, KIA는 대권 도전을 위해 알드레드를 대신해 '빅리거' 에릭 라우어를 영입했다. 마운드 변화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올 시즌 팀의 에이스로 자리한 제임스 네일이 8월 24일 타구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하면서 KIA는 우승 질주를 위해 대안에서 활약하고 있던 에릭 스타우트를 불러들였다. 덕분에 투수를 담당하던 박재형 통역은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 됐다. 통역은 단순히 선수들의 귀와 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매니저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팀에서의 생활은 물론 낯선 타국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상생활도 챙겨야 한다. 성격,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의 면모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 쟁길 게 많은 자리인데 무려 5명의 선수를 담당하느라 처음 KIA에 합류한 박 통역은 정신없는 시즌을 보냈다. 여기에 네일이 큰 부상을 당하면서 마음 졸이며 간병인 역할도 해야 했다. 돌아보면 험난한 시즌이었지만 박 통역은 자



KIA 타이거즈 박재형 통역(가운데)이 생일 축하 어깨띠를 하고 제임스 네일(왼쪽), 에릭 라우어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의 생일이었던 10월 28일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 이날 KIA는 7-5 역전승을 거두고, 12번째 우승을 완성했다. 박 통역은 “내가 태어난 이후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박우진 통역과 홍명효 통역이 내가 고생할 때 옆에서 빈자리 잘 채워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엄청 뿌듯하다. 1년 동안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특히 네일이 건강하게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올라 우승의 주역이 되면서 더 각별한 우승이 됐다. 박 통역은 부상 순간부터 복귀까지 옆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그는 “부상 순간에 나도 많이 다문되고 막막했다. 그래도 옆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있으려고 하고, 나도 맞춰서 노력 많이 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그것도 많

이 뿌듯했다. 단어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뿌듯함이 밀려왔다”며 “잘 던져보라는 마음보다는 아무 탈 없이만 하고 내려오라는 마음이 컸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 대구에서도 잘 던지는 것은 욕심이고 무난하면 던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언급했다. 큰 부상 이후 긴장감 가득한 경기에 나서게 된 만큼 누구보다 마음을 졸였고, 그만큼 더 기쁜 우승이 됐다. 그의 노력을 알고 있는 네일은 박 통역의 생일날 케이크와 함께 'HAPPY BIRTHDAY'가 새겨진 어깨띠까지 준비했다. 이날 네일의 요청으로 박 통역은 생일 축하 어깨띠를 하고 훈련을 하면서 축하 인사를 받았고, 우승이라는 거대한 선물까지 받았다. 그는 “KIA에 빛을 많이 줬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활짝 웃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뒷심 부족’ 페퍼스, 김연경의 흥국생명에게 져

V리그 1-3 패하며 시즌 1승2패...자비치 부재 아쉬워

페퍼스측은 행 A1페퍼스가 ‘최강자’ 흥국생명을 상대로 승점을 더하지 못했다. 페퍼스는 지난 2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예이 경기에서 흥국생명에게 세트스코어 1-3(25-23 25-27 20-25 15-25)패를 당했다. 페퍼스는 개막 후 연속가도를 달리며 여자부 우승 후보로 꼽히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첫 세트를 먼저 가져오는 데 성공했지만 2세트 듀스 접전 끝에 내리 3세트를 내주면서 역전을 당했다. 이날 박정아가 19점, 이한비 16점, 장위와 박은서가 13점 등 두 자릿 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전세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페퍼스는 37.66%의 리시브 효율을 보인 흥국생명에게 비해 20%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자아냈다.

‘강력한 외인’ 투트쿠와 ‘배구 여제’ 김연경의 맹공에 페퍼스는 팀 블로킹이 9-14로 뒤쳐졌고, 팀 범실 또한 23개가 쏟아졌다. 장위가 양팀 최다인 14.29%의 이동공격 성공률을 올렸고, 42.86%의 오픈 성공률로 접전을 유도했지만 외국인 선수 자비치가 부상으로 교체 결정되면서, 그간 선보인 높은 타점을 활용한 강타와 득점률에서 공백이 보였다. 뒷심이 부족했던 3-4세트에서는 초반부터 큰 격차로 벌어지면서 제압당한 페퍼스는 개막전 승리 후 2연패로 4위(1승2패·승점 4)에 머물렀다. 페퍼스는 지난 2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장단 첫 개막전 승리를 거두며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다. 이후 안방 개막전에서 만난 ‘천적’ 정관장을 상대로 2-3패배를 당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했다. 한편, 페퍼스는 이날 경기 시작 전 외국인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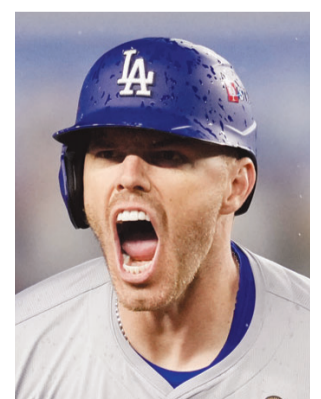
장소연 감독.

자비치의 교체 소식을 알렸다. 페퍼스는 자비치의 어깨 부상 등을 이유로 V리그 개막 후 2경기 만에 선수 교체를 결정했다. 대체 선수인 아포지 테일러 프리카노(미국)는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다저스 프리먼 또 넘겼다...WS 6경기 연속 홈런

양키스에 4-11 패하며 ‘3승1패’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 시리즈(WS·7전 4승제)를 지배하고 있는 타자 프레디 프리먼(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시리즈 4차전에도 담장을 넘겼다. 프리먼은 30일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MLB WS 4차전에서 0-0으로 맞선 1회초 1사 2루에서 선제 2점 홈런을 쳤다. WS 1차전 끝내기 만루홈런, 2차전 솔로홈런에 이어 전날 3차전에도 1회 선제 2점 홈런을 쳐 다저스의 시리즈 3연승을 이끈 프리먼의 방향이 4차전에도 식지 않았다. 1회초 1사 후 2번 타자 무키 베츠가 2루타를 치고 나가자, 다저스 타선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인 프리먼에게 기회가 왔다. 프리먼은 양키스 선발 루이스 힐의 바깥쪽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빨랫줄 같은 타구로 오른쪽 펜스를 넘겼다. 그 순간 양키스타디움은 적막에 빠졌고, 프리먼과 다저스 선수들의 환호성만 울렸다.



역대 WS에서 1~4차전 모두 홈런을 친 선수는 프리먼이 유일하다. 또한 프리먼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소속이던 2021년 WS 5, 6차전에서도 담장을 넘긴 바 있다. 이로써 프리먼은 조지 스프링어(2017~2019년)의 종전 WS 최다 연속 홈런인 5경기를 넘어 WS 6경기 연속 홈런으로 신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팀은 양키스 앤서니 볼피에게 역전 만루 홈런을 맞으면서 4-11 패를 기록했다. 앞선 WS 1~3차전을 모두 내주고 베팅에 몰렸던 양키스는 이날 승리로 기사 회생했다. /연남뉴스